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금융안정

2022. 9. 29.

선임연구위원 이효섭

목차

❖ 서론

❖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개연성

❖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분석

- 위험 유형별 분석
- 금융안정 위험 경로별 분석

❖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금융안정 제고 방향

서론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진출 현황

❖ 국내외 빅테크들이 금융서비스로 영역을 확장

- 초기 빅테크들은 AI 및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유통, 정보통신, 미디어, 여가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
- 최근 국내외 빅테크들은 예적금 수취, 대출, 자산관리, 보험, 지급결제 등 금융분야로 서비스를 확대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진출 현황

	예금수취	신용거래	지급결제	클라우드 펀딩	자산관리	보험판매
구글	△		○			
애플			○			
페이스북			○			
아마존		○	○	○		○
알리바바	○	○	○	○	○	○
바이두	○	○	○	○	○	○
텐센트	○	○	○	○	○	○
라쿠텐	○		○		○	○
네이버		○	○		△	△
카카오	○	○	○		△	△

자료: BIS(2021), 보험연구원(2022)

빅테크, 대형 핀테크의 금융진출 확대로 인한 부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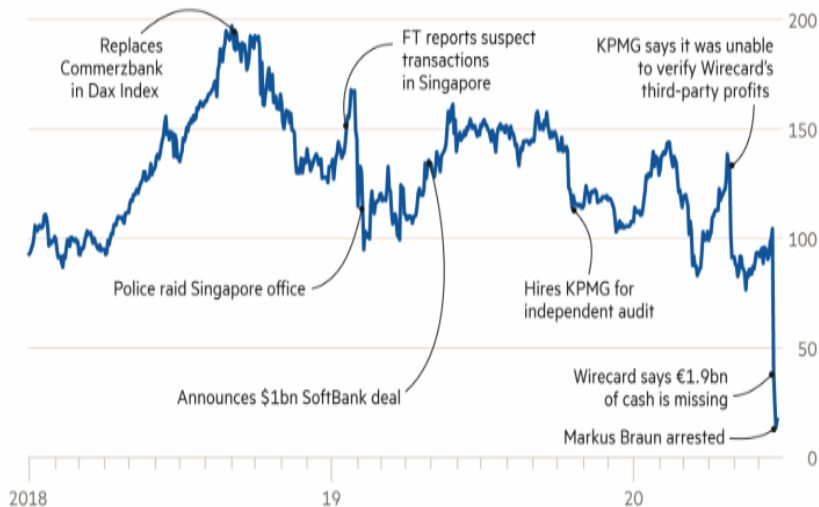
❖ '20.6월 독일 Wirecard의 파산 사건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 발생

- Wirecard는 '99년 설립 이후 비대면 결제 분야의 핀테크 회사로 성장했으며 '18.9월 DAX30에 편입
- '20.6월 회계부정(해외 예치자산의 부정계상) 이슈로 파산(1주일 내에 주가가 95% 하락)

❖ '21.8월 한국 머지포인트 환불 요구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 발생

- 한국기업 Merge는 공격적 프로모션(바우처 구매시 20% 할인)을 통해 급성장
- 가맹점 이탈 등으로 바우처 구매력이 하락했으며 2021년 8월에 대규모 환불 요구 발생

독일 Wirecard의 주가 추이



자료: Refinitive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이용자 피해



자료: 연합뉴스

국제 금융감독기구는 빅테크 금융진출로 인한 위험을 경고

❖ 빅테크 금융진출로 인한 위험 요인

- (소비자) 이용자간 이해상충(가격/서비스 차별화), 불완전판매, 해킹 및 시스템 장애, 정보보호 소홀
- (금융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과도한 신용창출, 자금세탁, 시스템리스크 확대 등

빅테크의 금융진출로 인한 위험

국제기구	유형	세부 내용
FSB	건전성 위험	빅테크의 경쟁력 우위 및 시장 지배력 확대로, 전통적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
	ICT 서비스 장애위험	클라우드, 통신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와 연계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관련 장애 발생 위험
	신용창출 위험	낮은 규제에 기반하여 신용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험
BIS	건전성 위험	빅테크의 경쟁력 우위 및 시장 지배력 확대로, 전통적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
	전통적 금융기관 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 유동성위험, 평판위험 등
	기타 위험	이용자간 이해상충 위험, 시스템위험, 감독부실 위험
IMF	불완전판매 위험	설명의무, 공시의무 소홀 개연성 / 금융소비자 선택권 저해 위험 등
	범죄 위험	자금세탁, 송금사기, 탈취 등에 노출될 위험
	규제 차익 위험	국경간 규제 차익 위험, 금융업-비금융업 규제 차익 위험

연구질문

Q. 빅테크 금융진출 확대로 인한 금융리스크 개연성?

Q. 한국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수준은?

Q. 한국 빅테크 금융진출 확대로 금융안정 위협 가능성은?

Q. 금융안정 제고를 위한 빅테크의 규율 방향은?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개연성

DNA 효과로 인한 빅테크의 순기능과 부작용

<경쟁력-순기능>

<위험>



데이터 독점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개연성

❖ 데이터 독점력의 기대와 우려

- (기대) 고객 데이터 수집과 플랫폼 지배력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고객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는 기존 서비스 강화 또는 신규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여 서비스 비용 절감이 가능
- (우려) 가격 및 상품 차별화 전략을 통한 소비자 후생 저하 위험, 불완전판매 위험, 불공정영업행위 위험, 정보 오남용 위험 등이 존재

데이터 독점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개연성

금융리스크 유형	세부 내용	금융리스크 강도
금융소비자 후생 저하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격 및 상품 차별화 전략을 수행	中, 大
불완전판매 위험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소홀하게 수행할 개연성	中
불공정영업행위 위험	번들링을 통한 특정 고객 혜택 제공, 1:1 맞춤형 배너광고를 통한 판매	中
정보 오남용 위험	자회사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오남용할 개연성	小, 中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한 금융리스크 개연성

❖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y)의 기대와 우려

- (기대) 플랫폼 기술과 고객 빅데이터를 기초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형성된 네트워크는 신규 고객 참여를 촉진시켜 다시 새로운 고객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며 지배력을 확대
- (우려) 시장 장악력을 통한 집중위험,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위험, 시스템위험 등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한 금융리스크 개연성

금융리스크 유형	세부 내용	금융리스크 강도
집중 위험	신규 소비자와 공급자 유입을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 개연성	中, 大
빅테크 건전성 위험	낮은 진입규제와 건전성 규제로 인해 빅테크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	中
금융회사 건전성 위험	전통적 금융회사의 시장 점유율 축소 및 낮은 마진으로 건전성 악화 위험	小, 中
시스템위험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연계성 증가, 빅테크의 복잡성 증가로 시스템위험 증가	小, 中

한국 빅테크의 금융진출 확대에 따른 우려

낮은
규제강도

..... ✓ 낮은 규제강도로 금융회사 본질적 업무 수행(예: 인터넷전문은행)

넓은
업무범위

..... ✓ 은행, 보험, 카드, 증권, 플랫폼 등 업무범위 확대 가능

빠른
장악력

..... ✓ ICT 기술력과 번들링 서비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주요국 빅테크의 금융업권별 진출 방식

❖ 한국 빅테크는 글로벌 빅테크와 상이한 방식으로 금융업에 진출

- 한국 빅테크는 (차별적)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진출
- 미국 빅테크는 은행 등 주요 금융업에 대해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에 제휴 방식으로 진출
- 최근 중국 정부는 빅테크의 계열사내 신용공여 업무를 금지하는 조치를 명령

주요국 빅테크의 금융업권별 진출 방식 비교

	미국		한국		중국		일본	
	구글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알리바바	바이두	라쿠텐	도코모
은행	X	X	X	License	△	△	License	License
보험판매 자산관리	X	Partner	License(?) + Partner	License + Partner	License + Partner	License + Partner	License	License
신용공여	X	Partner	Partner	License + Partner	X	X	X	제휴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	Partner	Partner	License + Partner	License + Partner	License	License	License	License

자료: BIS(2021), BIS(2022), 보험연구원(2022) 참조

한국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규제 격차 분석

❖ 한국 빅테크는 금융회사 대비 규제 강도가 낮음

-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등의 경우 빅테크가 금융회사보다 훨씬 낮은 규제를 적용 받음
 - 예) 인전의 자본금은 시중은행의 1/4에 불과, 인전은 비금융사 주식보유한도가 34%로 완화
- 건전성 규제, 소비자보호 규제 등도 빅테크가 금융회사보다 낮은 규제를 적용 받음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규제격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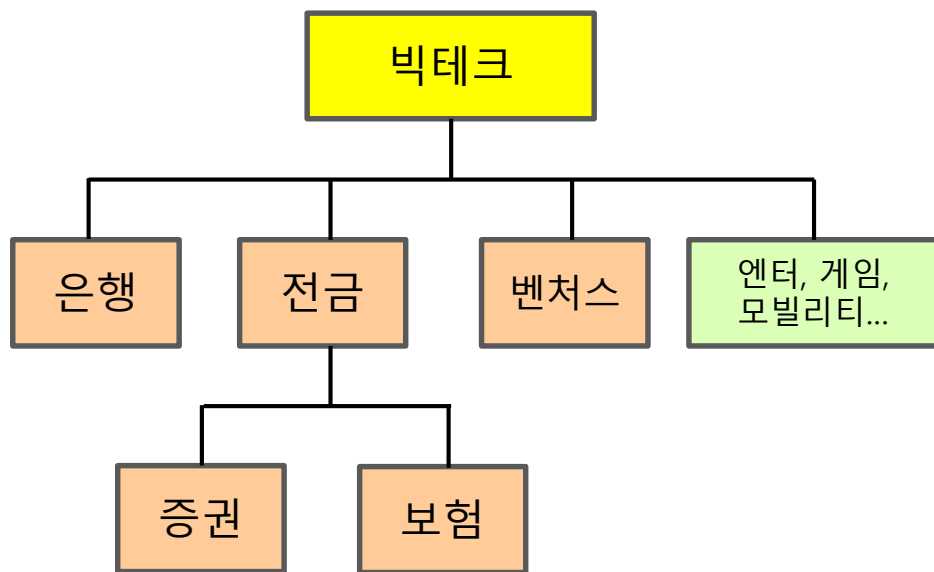
규제 유형	빅테크 주요 규제	금융회사 주요 규제	규제 격차
진입	자본금(인전): 250억원 비금융 주식보유한도(인전): 34%	자본금: 1,000억원 비금융 주식보유한도: 4%	빅 << 금
건전성	자기자본규제: BIS 비율 레버리지비율 규제: X	자기자본규제: BIS 비율+알파, 경기대응 완충자본, 자본보전완충자본 레버리지비율 규제: O	빅 << 금
영업행위	공시, 보고의무: 특례(비대면)	공시, 보고의무: 대면	빅 < 금
소비자보호	투자권유 규제: 광고 방식시 미적용	투자권유 규제: 적용	빅 << 금

한국 빅테크는 소유구조 제한이 약해 넓은 업무범위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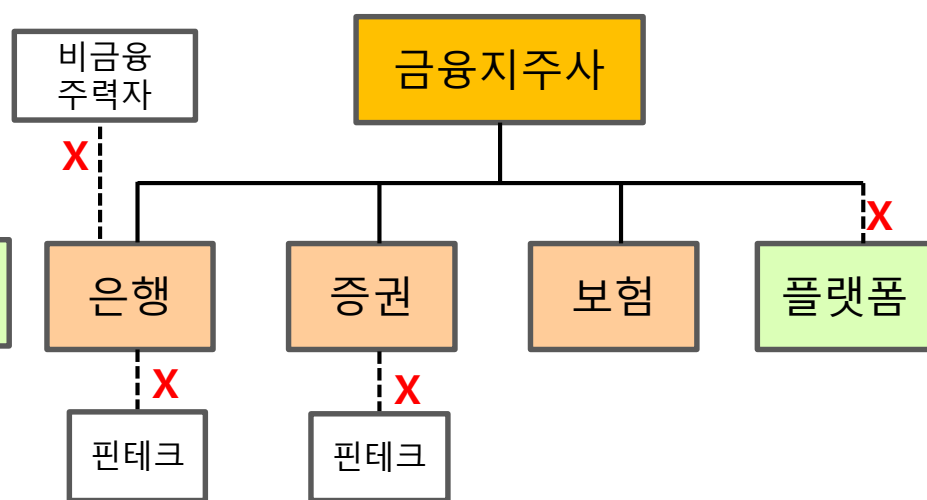
❖ 국내 빅테크는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수평-수직 소유에 제한이 없어 넓은 업무범위가 가능

- 주요 빅테크는 금융회사 뿐 아니라 비금융회사 소유를 통해 업무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
- 반면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주식의 5% 이상 보유를 통한 지배력 향유 또는 비금융회사 주식의 20% 초과소유 행위를 금지(금산법 §24.1)
- 유사하게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 금융업과 관련 없는 비금융회사에게 15% 이상 출자를 금지

빅테크 소유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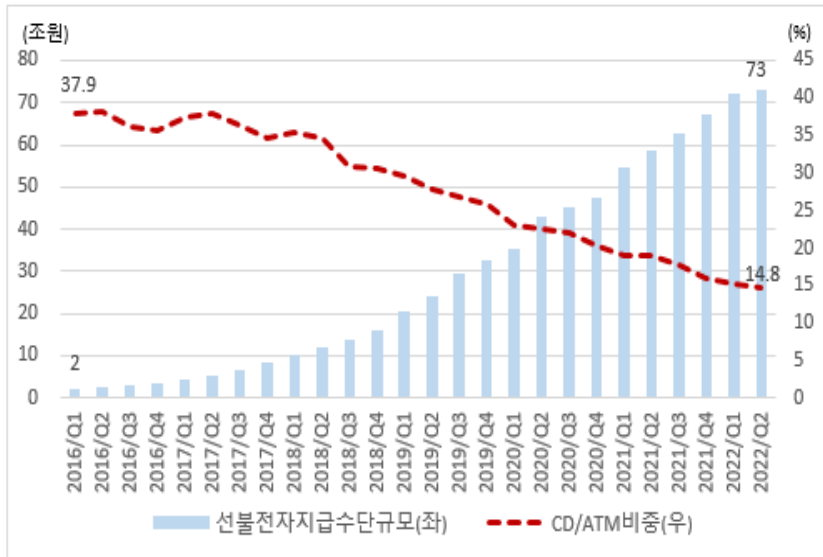
금융지주사 소유구조



한국 빅테크의 빠른 장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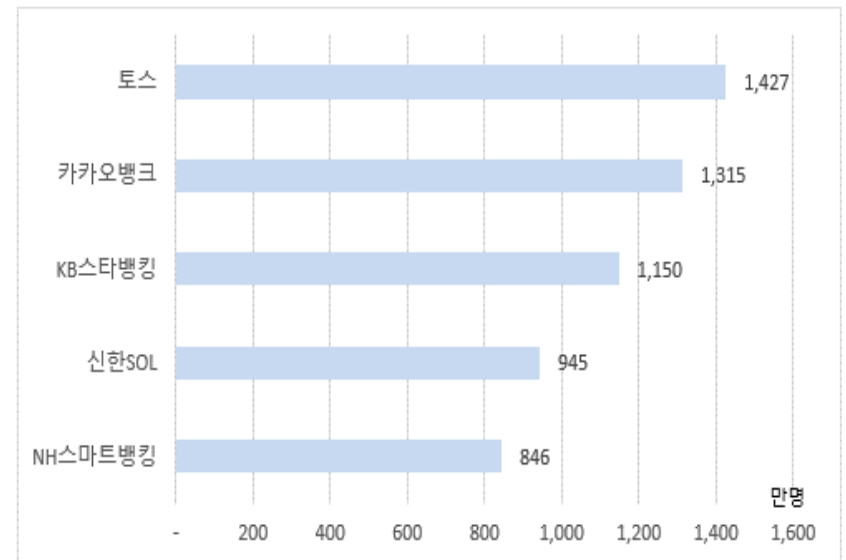
- ❖ 비대면 거래 수요 증가 등으로 한국 빅테크는 **뱅킹, 결제 분야에서 빠른 장악력을 보임**
 - ICT 기술 발전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대면 거래 비중이 줄고,페이(pay),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페이 서비스 지배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22.6월 기준 일평균 선불전자지급수단 규모는 6천억원('22.2Q: 73조원)으로 5년전 대비 약 40배 증가
 - '22.6월 토스, 카카오뱅크의 월간 이용자수는 1427만, 1315만명으로 대형 시중은행 앱을 크게 상회

선불전자지급수단 규모 및 CD/ATM 거래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은행/뱅킹앱 월간 이용자수 현황('22.6월)



자료: 모바일인덱스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분석

금융리스크 분석을 위한 빅테크의 정의

❖ 금융리스크 분석을 위한 빅테크의 개념 정의

- 해외: 플랫폼 서비스 여부, 다국적 서비스 여부, 규모(매출액/시가총액), 이용자수(고객/입점업자) 등
- (빅테크 판단 기준) ① 온라인에서 양면 플랫폼 제공 ② 금융업 본질적 업무 제공 ③ 시가총액이 10조원 내외 또는 이상 ④ 월간 이용자수가 2천만명 이상 등 ①~④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잠재 빅테크 판단 기준) ①과 ②조건을 만족하고 ③ 또는 ④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빅테크 판단 기준

기업명	온라인 플랫폼	금융서비스	규모 (시가총액)	이용자수	빅테크 판단
네이버	○	○ (페이, 보험)	37조원	4,100만명	빅테크
카카오	○	○ (은행, 증권, 보험, 페이,..)	30조원	4,500만명	빅테크
토스	○	○ (은행, 증권, 보험, 페이,..)	8~20조원 (비상장)	1,400만명	잠재 빅테크
KT	○	○ (K뱅크)	10조원	300만명	잠재 빅테크
두나무	○	△ (가상자산)	6~10조원	300만명	-
KB금융	△	○	20.4조원	1,020만명	-
신한지주	△	○	18.4조원	950만명	-

주: 시가총액은 2022년 9월 15일 기준 코스콤,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 참조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분석 요약

- ❖ 시장위험, 신용위험을 제외한 주요 위험 유형에서 빅테크가 다소 높은 위험을 보유
 - 운영위험, 집중위험, 평판위험 등은 빅테크가 다소 높은 위험을 보유
- ❖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수준의 증가 속도가 다소 빨라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한국 빅테크의 위험 유형별 금융리스크 분석

		빅테크 위험	금융회사 위험	금융리스크 비교 분석	빅테크 위험증가 속도
핵심 금융 위험	시장	소	대	빅 << D-SIFI	-
	신용	소	대	빅 << D-SIFI	빠름
	운영	중	소	빅 > D-SIFI	빠름
비핵심 금융 위험	유동성	소	소	빅 ≒ D-SIFI	다소 빠름
	집중	대	소	빅 >> D-SIFI	다소 완화
	법률	소, 중	중	빅 ≒ D-SIFI	다소 빠름
	평판	중	소	빅 > D-SIFI	다소 빠름
	시스템	소	소, 중	빅 < D-SIFI	다소 빠름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분석 - 핵심 금융위험 수준

- ❖ 신용위험, 시장위험 등은 금융회사가 빅테크보다 높음
 - 금융회사가 빅테크보다 예적금 및 대출 규모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신용위험, 시장위험이 큼
- ❖ 운영위험은 빅테크가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
 - 빅테크 순이익은 낮고 자산규모 대비 월간 이용자수는 월등히 높아 IT 시스템 장애, 내부통제 미흡 등 각종 운영위험을 많이 내재한 것으로 추정

대형은행과 빅테크 계열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 금융위험 비교

	A시중은행	B시중은행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자산총계	487.7조원	494.6조원	39.5조원	4.5조원	29.2조원
시장위험 가중자산	98조원	11.6조원(e)	-	-	-
신용위험 가중자산	187.9조원	175.6조원(e)	14.2조원	6.8조원	4.8조원
순이익	1.7조원	1.7조원	0.1조원	0.05조원	-0.1조원
월간 이용자수	1,150만명	945만명	1,315만명	300만명	1,427만명
자산 대비 월간 이용자	1.65 (만명/조원)	1.42	33.29	66.67	48.87

주 : 2022년 6월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모바일인덱스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분석 - 핵심 금융위험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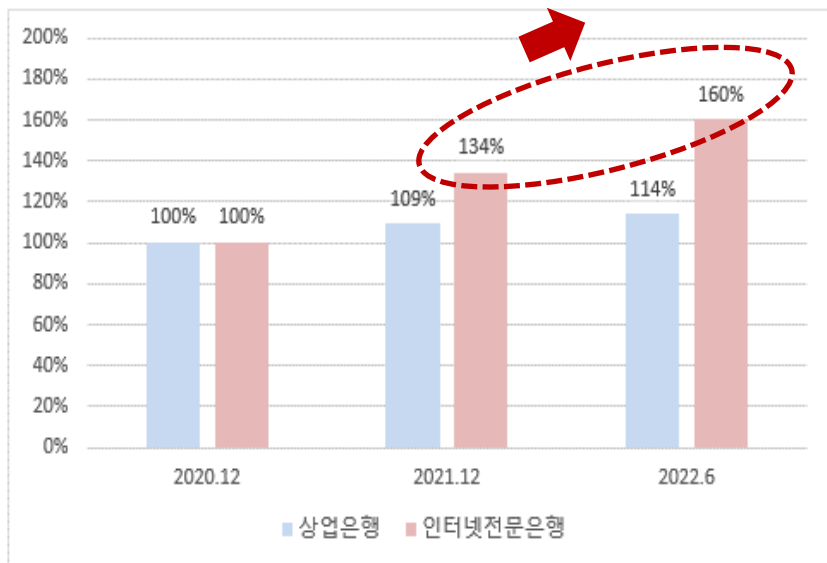
❖ 신용위험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 속도는 빅테크가 다소 빠름

- 22.6월 빅테크 계열 인전의 위험가중자산은 20년말 대비 60% 증가한 반면 대형은행은 14% 증가
-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신규 고객 확보를 늘리면서 신용위험 절대 수준이 큰 폭으로 증가

❖ 빅테크의 순이익은 줄고 있고, 이용자수는 늘고 있어 운영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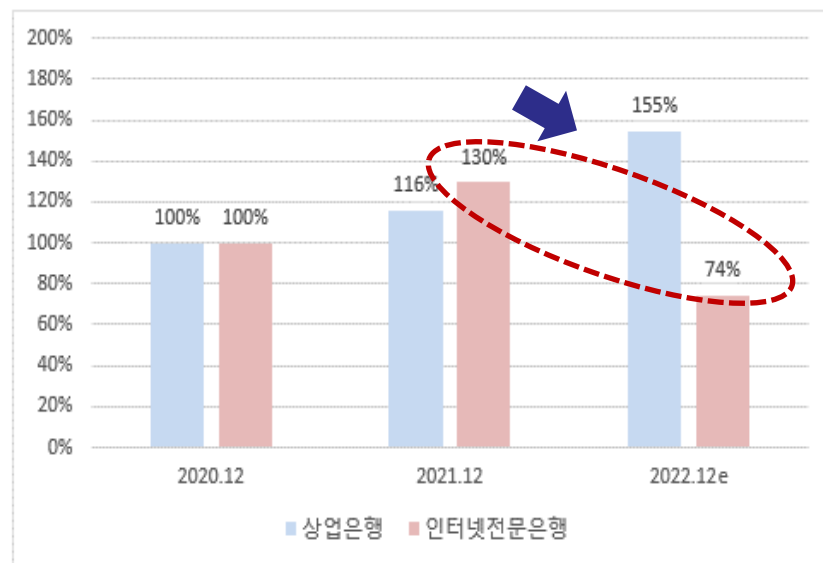
- 22.6월 빅테크 계열 인전의 순이익은 20년말 대비 30% 감소한 반면 대형은행은 55% 증가
- 인전의 예적금 수취, 대출 비중은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줄고 있어 내부통제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

대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dart.fss.or.kr, 각사 홈페이지

대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순이익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dart.fss.or.kr, 각사 홈페이지

빅테크의 유동성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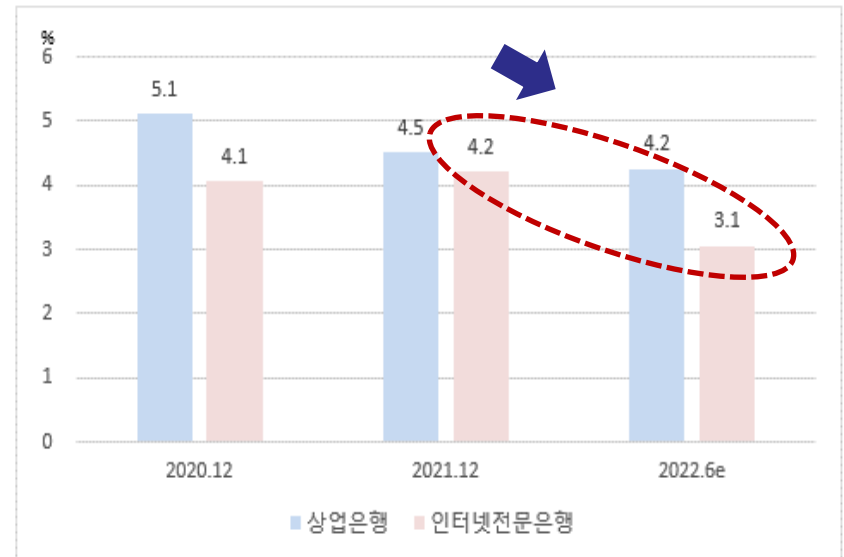
- ❖ 빅테크의 유동성 규제 비율 수준이 높아 유동성 위험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음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형은행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 다만 빅테크의 현금성자산 보유 비중이 빠르게 줄고 있어 유동성 위험 모니터링이 필요
 - 빅테크 계열 인전의 현금성자산 비중이 빠르게 줄고 있는 등 유동성위험의 질적 수준이 악화

대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위험 비교

	A은행	B은행	카카오 뱅크	K뱅크	토스뱅크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921%	98.1%	989.6%	168.5%	873.4%
순안정 자금 조달비율	110.8%	107.3%	197.6%	136.7%	292.2%
현금성 자산비중	43%	4.19%	5.35%	3.33%	0.48%
부외자산 비중	88%	11.7%	9.5%	8.0%	1.1%

주 : 2022년 6월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dart.fss.or.kr, 각사 홈페이지

대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현금성자산 비중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dart.fss.or.kr, 각사 홈페이지

빅테크의 집중위험

❖ 빅테크는 대출자산, 예적금(예수부채) 모두 집중위험이 다소 높음

- 인전은 라이선스 제약 등으로 가계대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대출자산의 만기도 짧은 편임
 - 유형별, 만기별 대출자산 분포를 측정한 결과 인전의 집중도가 대형은행보다 월등히 높음
- 인전은 1년 미만 예적금 비중이 높아 위기 상황시뱅크런 등에 취약할 수 있음
 - 일부 인전은 가상자산 관련 예수금 비중이 높아 가상자산시장 위기시뱅크런에 취약할 개연성

대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유형별 대출자산 분포

	A은행	B은행	카카오 뱅크	K뱅크	토스뱅크
제조업	13.2%	16.3%	0.0%	0.0%	0.7%
서비스업	35.6%	28.2%	0.0%	11.5%	37.4%
기타	6.6%	4.5%	0.0%	0.1%	0.9%
가계대출	44.5%	51.0%	100.0%	88.2%	61.1%
허핀달 지수	3,469	3,683	10,000	7,905	5,130

주 : 2022년 6월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dart.fss.or.kr, 각사 홈페이지

대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만기별 예수부채 분포

	A은행	B은행	카카오 뱅크	K뱅크	토스뱅크
1년 이하	51.2%	29.0%	63.2%	63.4%	67.3%
1년 초과~ 3년 이하	18.4%	41.6%	29.9%	18.7%	5.4%
3년 초과~ 5년 이하	5.2%	7.9%	4.7%	7.0%	10.4%
5년 초과	25.2%	21.3%	2.2%	10.9%	16.8%
허핀달 지수	3,620	3,090	4,918	4,534	4,945

주 : 2022년 6월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dart.fss.or.kr, 각사 홈페이지

빅테크의 법률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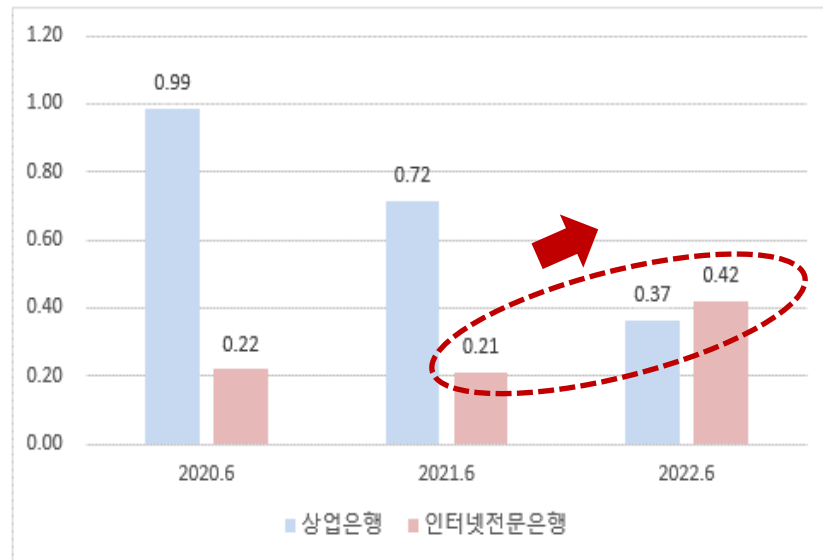
- ❖ 법률위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긴 어려우나 빅테크의 법률위험이 높다고 말할 수 없음
 - 최근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건수, 민원건수 등은 대형은행이 빅테크 계열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 ❖ 다만 빅테크의 고객수당 민원건수가 증가하는 부분은 유의
 - 고객 10만명당 민원건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

대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법률위험 지표 비교

	A은행	B은행	카카오 뱅크	K뱅크	토스뱅크
금융사고 발생건수	1	7	1	1	0
고객10만당 금융사고수	0.0030	0.0258	0.0060	0.0127	0.0000
민원건수	126	95	30	11	23
고객10만당 민원건수	0.38	0.35	0.18	0.14	0.94

주 : 2022년 6월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dart.fss.or.kr, 각사 홈페이지

대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10만명당 민원건수



주 : 2022년 6월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dart.fss.or.kr, 각사 홈페이지

빅테크의 평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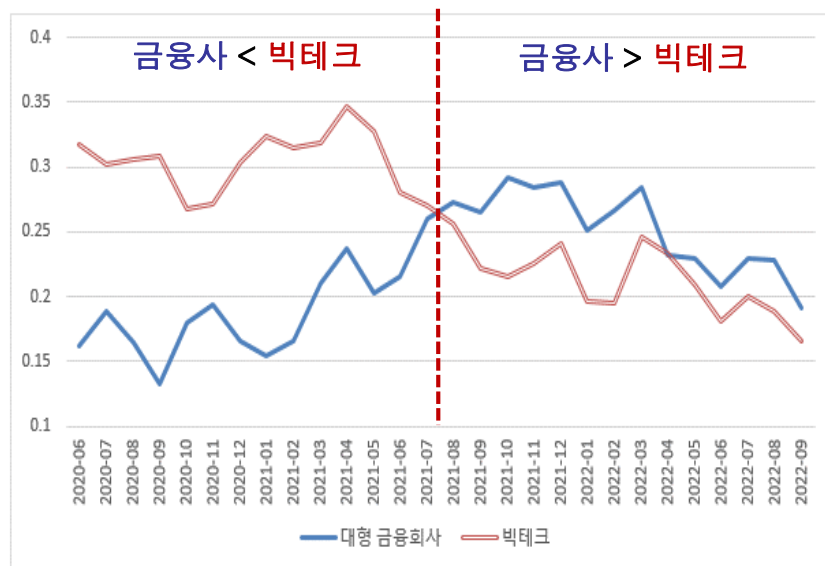
- ❖ 평판위험 측정에 한계가 있으나 빅테크가 금융회사보다 평판위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
 - 주요 빅테크 및 잠재 빅테크의 ESG 등급은 대형 금융지주회사보다 1~2단계 낮은 것으로 보고
- ❖ 긍정뉴스-부정뉴스 비중 추이를 보면 빅테크의 평판위험이 다소 커졌다고 볼 수 있음
 - 뉴스사전을 통한 긍정-부정 비중 분석 등에 따르면, 2021년 들어 빅테크의 긍정-부정 뉴스 비중이 금융회사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금융회사와 빅테크의 ESG 등급 비교

	A금융 지주	B금융 지주	네이버	카카오	KT	토스
기업지배 구조원	A+	A+	A+	A	A	-
MSCI	AA	AA	AAA	A	-	-
서스틴 베스트	AA	AA	AA	A	A	-

주 : 2022년 6월말 기준
 자료: esg.krx.co.kr, 서스틴베스트

금융회사와 빅테크의 긍정-부정 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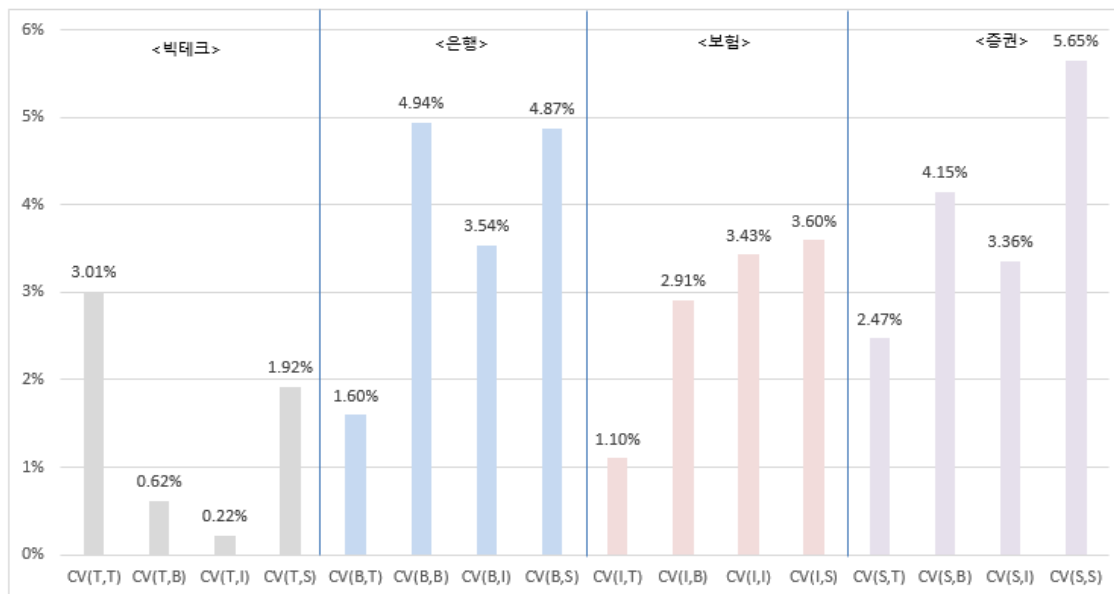
자료: 답서치

CoVAR를 통한 빅테크의 시스템위험 수준

❖ 빅테크의 전이 위험은 은행, 보험, 증권보다 높다고 볼 수 없음

- 1% 유의수준에서 빅테크의 극단적 손실은 타 금융회사의 0.92% 손실로 전이
- 1% 유의수준에서 은행(증권)의 극단적 손실은 타 금융회사의 3.34%(3.33%) 손실로 전이
- 즉, CoVAR 분석을 통해 전이 위험을 측정하면 '은행=증권 > 보험 > 빅테크' 순서로 높음

CoVAR를 통한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손실전이 위험



주1 :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말 일간 수익률을 사용

주2 : CoVAR는 오른쪽 식을 통해 산출

자료: 코스콤(CHECK)

$$CoVAR(S_n, B_m) = E[ret(B_m) | P(ret(S_n)) < 0.01]$$

$$CoVAR(S_n, B) = \frac{1}{M} \sum_{m=1}^M CoVAR(S_n, B_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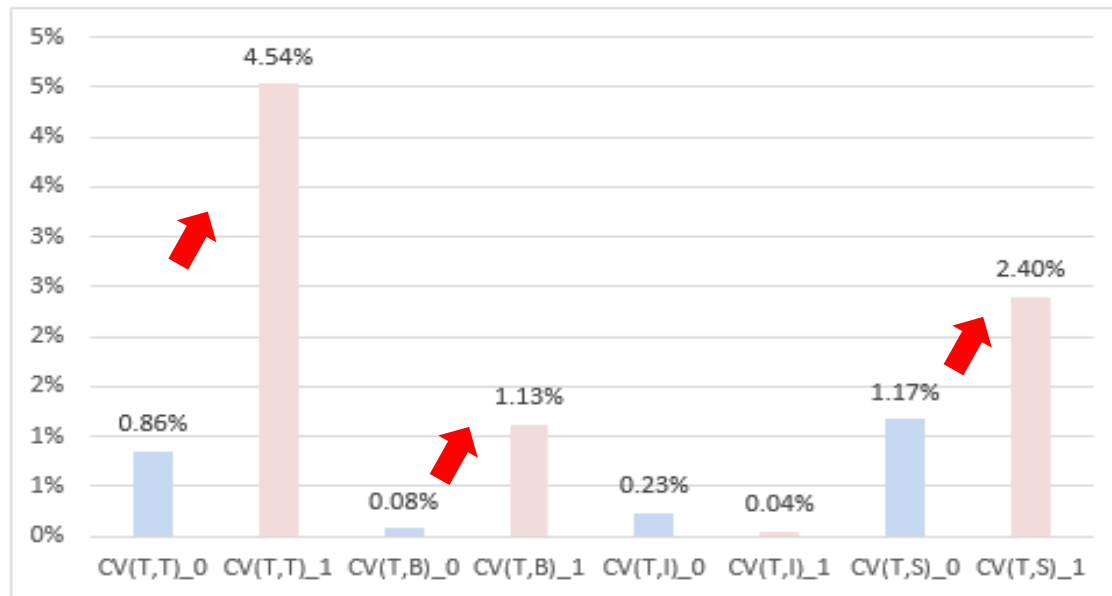
$$CV(S, B) = \frac{1}{N} \sum_{n=1}^N CoVAR(S_n, B)$$

CoVAR를 통한 빅테크의 시스템위험 수준 추이

❖ 2020년 이후 빅테크의 시스템위험 수준은 다소 커진 것으로 추정

- '17.1~'19.12 동안 빅테크의 위기 상황시 전이위험 수준은 0.58%에 불과
- '20.1~'22.8 동안 빅테크의 위기 상황시 전이위험 수준은 2.02%로 약 4배 증가
 - 동기간 은행, 보험, 증권에 비해 위기 상황시 전이위험 수준은 2.5~2.6배 증가

2020년 이전과 이후의 빅테크의 COVAR 비교



주 : 샘플1은 2017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샘플2는 2020년 1월 1일 ~ 2022년 8월 31일
자료: 코스콤(CHECK)

한국 빅테크의 금융안정 위협 경로

금융기관
위협경로

..... ✓ 시장 및 신용위험 전이 확률은 小, 운영위험의 전이확률은 大

금융시장
위협경로

..... ✓ 주식, 채권시장 전이 확률은 小, 비시장자산 통한 전이확률은 中

금융인프라
위협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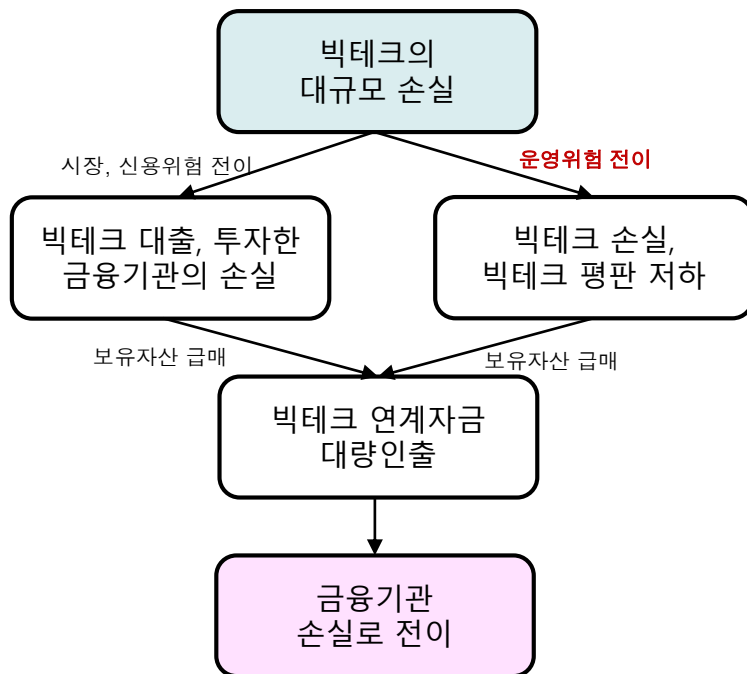
..... ✓ ICT 인프라 장애, 해킹으로 지급결제 인프라 안정 훼손 위험 大

빅테크의 금융기관 안정성 위협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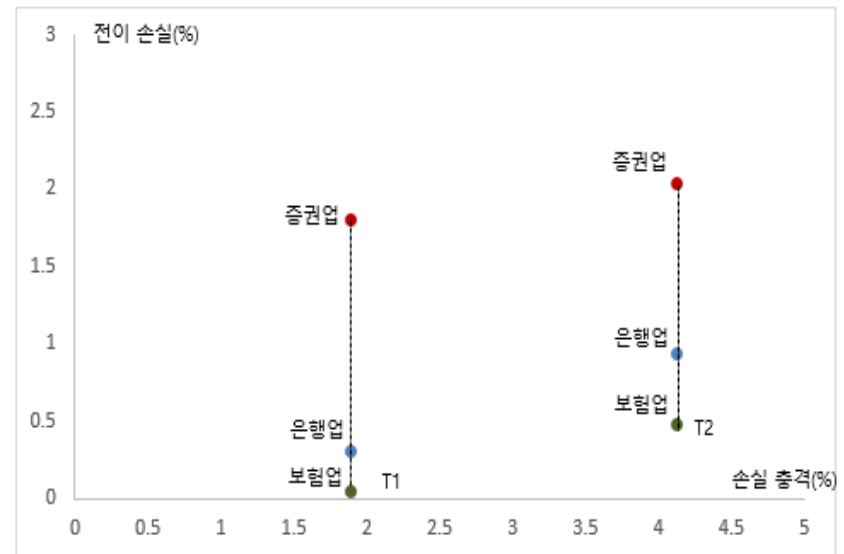
❖ 빅테크는 운영위험을 통해 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

- 빅테크 손실 or 평판위험 저하 → 고객이탈, 보유자산 급매 → 연계자금 대량인출 등의 경로
- 주가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빅테크와 증권회사간 연계 위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관찰
 - 빅테크와 증권회사는 손익 변동성 및 평판위험이 크고 시장위험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

빅테크의 금융기관 안정성 위협 경로



빅테크와 타 금융회사간 연계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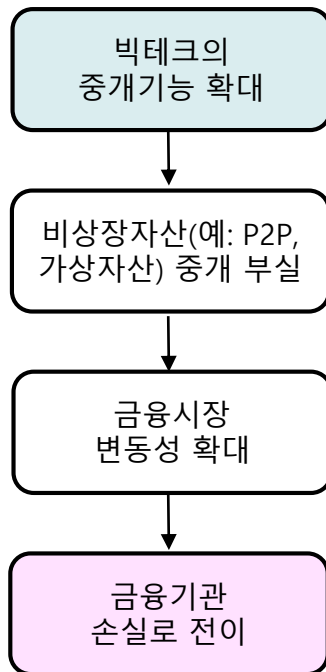
자료: 코스콤(CHECK)

빅테크의 금융시장 안정성 위협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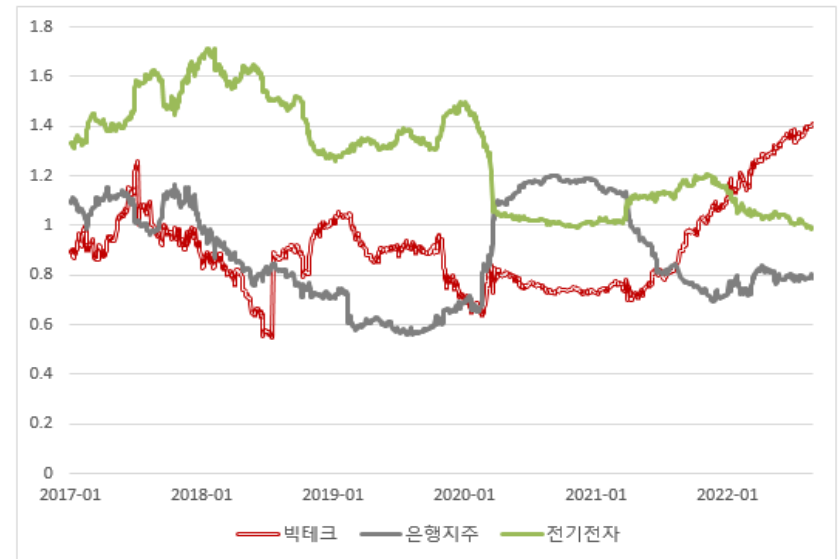
❖ 빅테크는 비시장성 자산 중개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

- 빅테크 자본시장 영향 확대(P2P, 비상장자산 등) → 비시장자산 중개 부실 →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 빅테크의 가변적 베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시장내 잠재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추정
 - 실제 빅테크의 시장 민감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전기전자 업종 등은 감소

빅테크의 금융시장 안정성 위협 경로



빅테크, 은행, 전기전자 섹터의 가변적 베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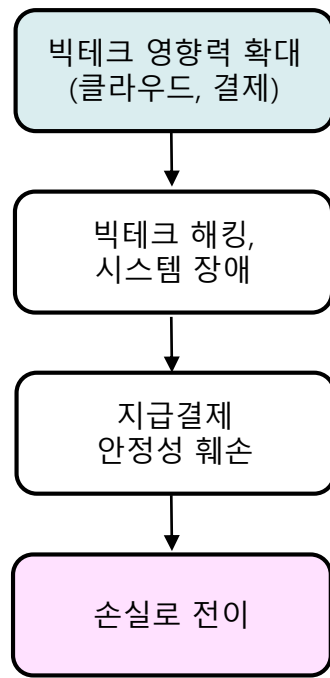
자료: 코스콤(CHECK)

빅테크의 금융인프라 위협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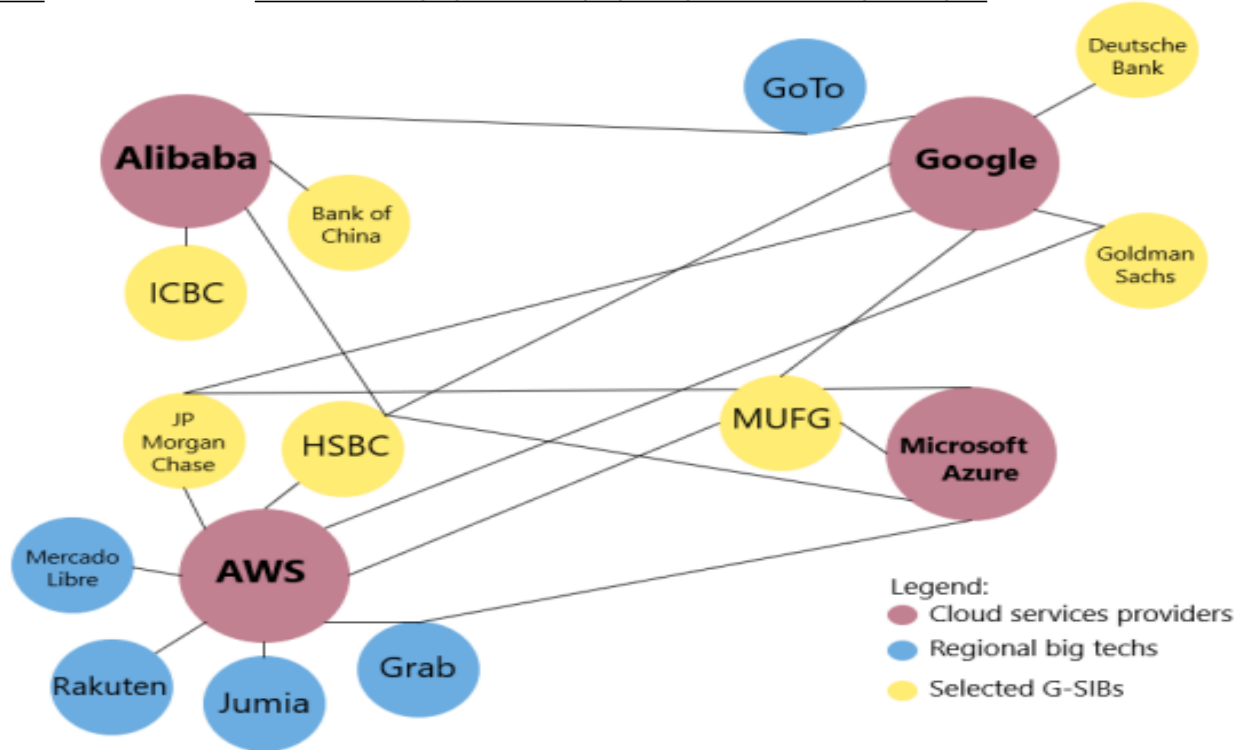
❖ 빅테크는 ICT 인프라 장애, 해킹 등으로 지급결제 안정성을 훼손할 개연성

- 빅테크 영향력 확대 → 빅테크 해킹, 시스템 장애 →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 등의 경로
- 국내외 빅테크는 Cloud 서비스 등을 통해 G-SIFI 등과 밀접히 연계
 - Cloud 서비스에서 장애, 해킹 등이 발생할 경우 G-SIFI의 고객들이 대규모 피해를 볼 수 있음

빅테크의 금융인프라 안정성 위협 경로



Cloud를 매개로 한 빅테크와 G-SIFI간의 연계성



자료: BIS(2022.7)

요약

Q1. 빅테크 금융진출 확대로 인한 금융리스크 개연성?

- DNA 효과로 집중 위험, 불완전판매 위험, 건전성 위험, 시스템위험 개연성
- 규제 격차, 넓은 업무범위, 빠른 장악력으로 한국 빅테크는 잠재 위험이 큼

Q2. 한국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수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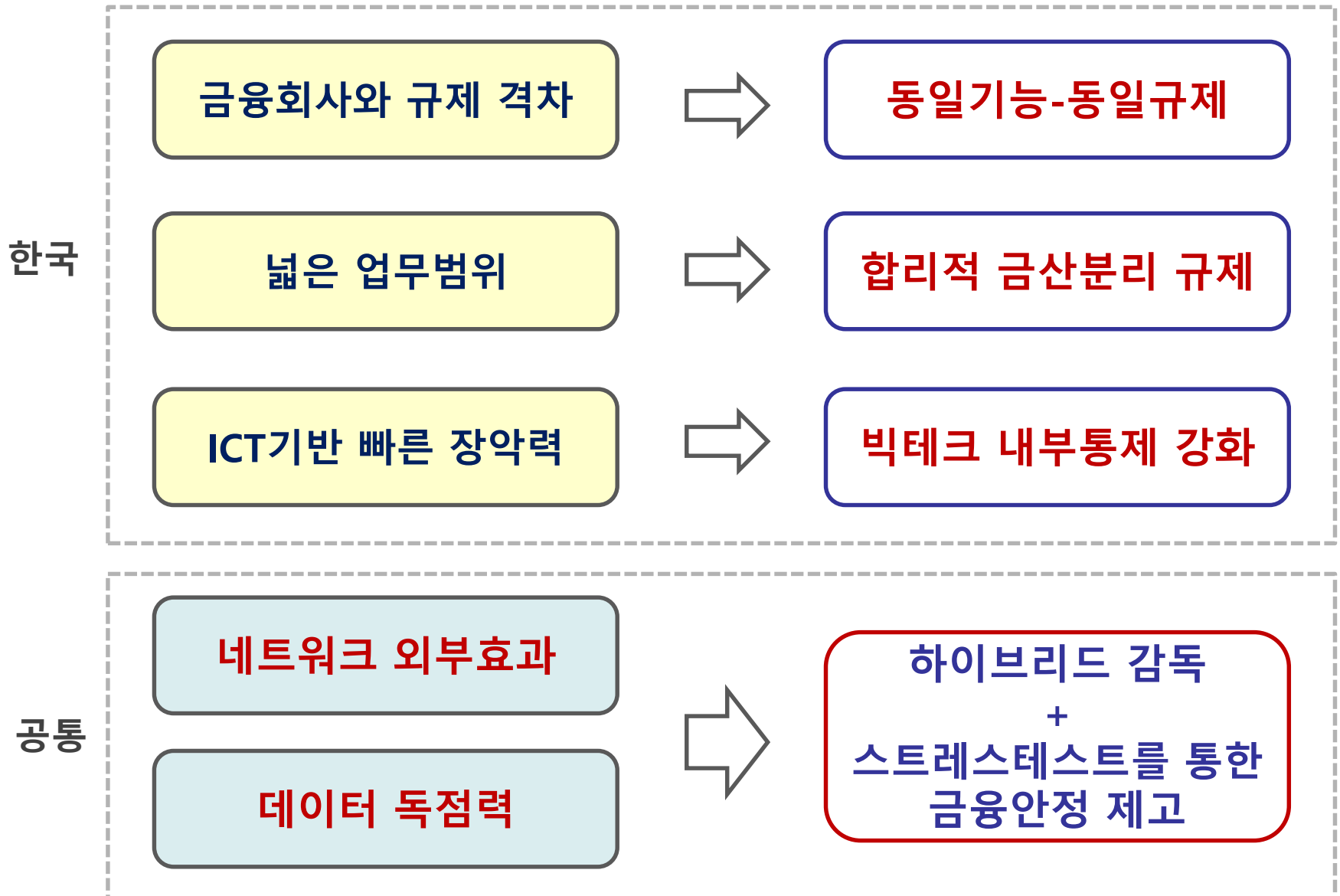
- 운영위험, 집중위험, 평판위험 등은 빅테크가 다소 큼
- 신용위험, 운영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커지고 있어 모니터링 필요
- 시스템위험은 크지 않으나 최근 시스템위험 개연성이 증가

Q3. 한국 빅테크 금융진출 확대로 금융안정 위협 가능성은?

- 운영위험을 통해 금융기관 안정 위협 가능성
- 비시장성 자산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위협 가능성
- ICT 장애, 해킹 등을 통해 금융인프라 안정 위협 가능성

빅테크의 금융안정 제고 방향

한국 빅테크의 금융리스크 억제 방향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규제격차 해소

- ✓ 은행업, 보험업 등 본질적 업무 제공시 동일한 진입규제 적용
- ✓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보호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

위험비례 원칙

- ✓ 본질적 업무의 일부 제공시 낮은 강도의 영업행위 규제 적용
- ✓ 금융업과 경계가 모호한 혁신 서비스는 네거티브 원칙 적용

광고/중개 모호성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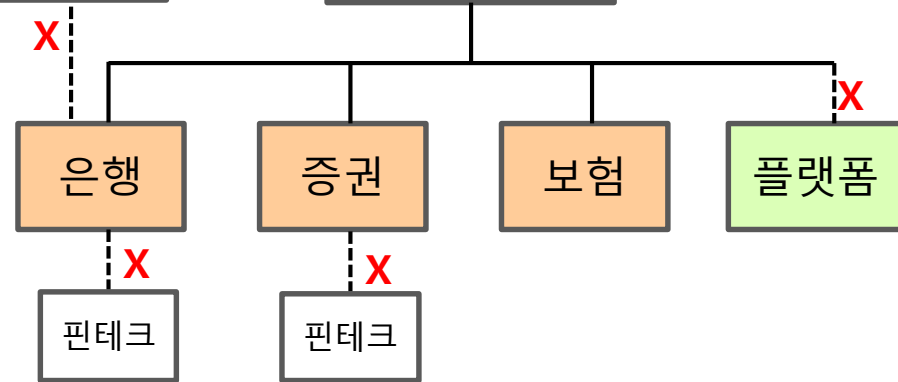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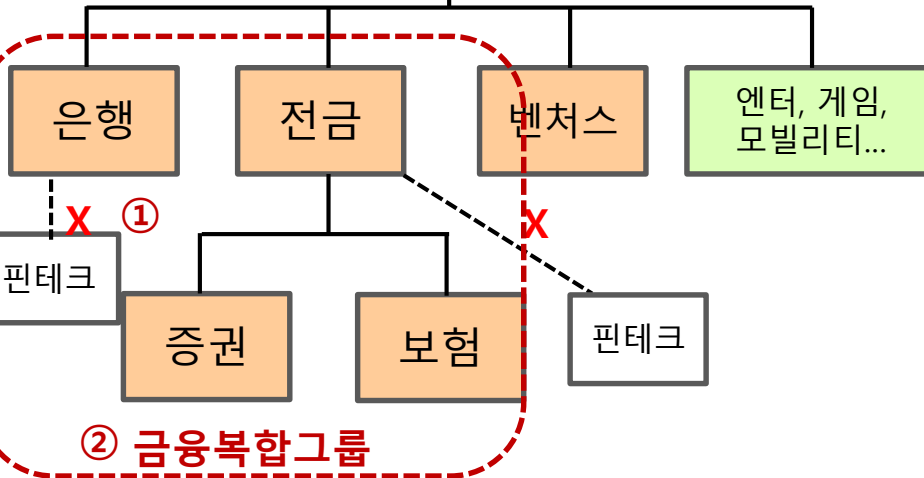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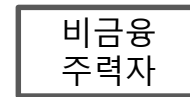
- ✓ 상품/소비자 비특정성, 광고 지속성 요건 충족시 광고 규제 적용
- ✓ 그 외 중개 또는 판매로 보아 엄격한 투자권유 규제 적용

합리적 금산분리 규제

- ❖ 빅테크 계열 금융회사의 소유구조 제한을 금융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
 - 금융지주사 하단 소유구조 완화와 별도로, 인전/전금업자에 대해 비금융 자회사 소유 제한을 검토
- ❖ 빅테크의 금융 자회사, 손자회사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동일규제 적용 검토
 -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체제, 위험관리체제,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의 공시를 유도

빅테크 소유구조

금융지주사 소유구조



빅테크의 내부통제 강화

내부통제 강화

- ✓ 빅테크에게 금융회사와 유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 부여
- ✓ 해킹 및 정보보호, 금융안정 제고 관련한 내부통제 의무 강조

역할책임 구체화

- ✓ CEO, CRO, CCO, CTO 등 감독자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 합리적 수준의 빅테크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인센티브 제고

- ✓ 내부통제 충실 구축 및 운영시 인적/금전 제재 경감
- ✓ 빅테크의 사전/사후 감독시 인센티브 제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 위험전이 채널 별로 사전적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사전)

- 금융기관 불안정성, 금융시장 불안정성, 금융인프라 불안정성 채널 별로 스트레스 테스트 정례화

❖ 라이선스 기반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관련해서 금융회사와 동일한 감독 수행 (사후)

- 운영위험, 집중위험, 평판위험 확대로 이용자 피해, 불완전판매, 해킹 및 정보보호 규율 등을 강화

금융안정 제고를 위한 하이브리드 감독 방향

금융안정 유형		금융안정 훼손 가능성	대응 방향
금융기관 전이위험	핵심위험	시장/신용리스크 채널 낮음 운영리스크 채널 大	스트레스 테스트 정례화 (유동성/클라우드 등) + 유동성 규제, 감독
	비핵심위험	유동성/집중/평판 리스크 大	
금융시장 전이위험	주식/채권	전이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음	스트레스 테스트 정례화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 집중위험 완화 (예: 예적금, 대출 등)
	비시장성자산	비상장주식, 가상자산시장 급락시 뱅크런을 통한 금융안정 훼손 中	
금융인프라 전이위험	금융인프라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 小, 中	해킹 및 보안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 해킹 및 정보보호 감독
	데이터인프라	클라우드 등 데이터 관련 시스템 장애 or 해킹 가능성 中	

감사합니다.